

# 노동시장 격차 해소 본격 추진

### 고용부, 정책심의회... 노동조건 개선·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의제 선정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7개의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란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지원 제도다. 특히 올해 27개 과제 중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엔 정부가 선정한 27개 과제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활성화 방안 등 산업활성화 7건 ▲가구분야 구조변동에 대비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고용효과 등 인력양성 4건 ▲화학 분야 인력 양성·확보 방안 등

인력이동 4건 ▲SI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건 개선 4건 ▲상가임대 안정 정책의 고용효과 등 공정경쟁 3건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등 4차 산업혁명 4건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의 고용효과 등 자치단체 1건 등이다. 특히 올해 평가과제에는 그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기조에 맞춰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이 보

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수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는 지난해에는 다루지지 않았던 주제지만 이에대한 대비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심의위원들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기계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자원이 혁신성장을 견인

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학 분야(석유화학·정밀화학·바이오)를 비롯해 스마트 가구 도입 등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가구 분야에서도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효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고용영향평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오늘 선정된 정책과제가 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 및 고용·산업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 이스타항공, 상반기 공채 서류 마감... 40:1 기록

이스타항공 2018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 공개 채용에 2400여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40대 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 모집 군은 ▲일반 사무(법무, IT, 안전조사, 항공보안, 운항) ▲영업 ▲정비 ▲운항관리 등으로 서류모집전형을 통한 면접자 선발을 진행하게 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 예정이다.

채용 심사는 면접자에게 부여된 면접 번호 외에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역량 평가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외적인 스펙이 아닌 인성과 직무와 연계된 능력 위주로 평가를 진행 한다"며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직무 연관성을 잘 고려하여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 정영진 KCC 전주공장장 대통령 표창 서상국 창해에탄올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

지역 모범 기업인들이 제45회 상공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1일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따르면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정영진 (주)KCC 전주공장장, 서상국 (주)창해에탄올 대표이사 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주)KCC 정영진 전주공장장(62)은 완주산업단지에서 참호, 집기소재, 도로, 실리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주 1,2,3공장 통합공장장으로

2011년부터 7년간 재임하면서 회사의 비전인 'Global Top 수준의 친환경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헌신했다. 또한 정영진 공장장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선진자동화 시스템인 MES와 QIS를 도입하여 생산 최적화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화, 자동화, Batch Size 증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KCC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외에도 노사 상생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노사협

의회, 조반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 대표, 사내협력업체 대표, 전주고용노동자청이 함께 뜻을 모아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2016년)을 가져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주)창해에탄올 서상국 대표이사(64)는 지난 1982년 창해에탄올의 정신인 '보혜주정에 입사하여 35년 9개월 동안 주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서상국 대표이사는 창해에탄올의 50여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주력사업인 주정 제조 분야에서 국내 생산량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코스닥 상장이란 쾌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창해에탄올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수호 기자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불우이웃돕기, 문화재 복원 성금 기탁,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금번 45회 상공의 날을 맞아 우리고장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상공의 날 표창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념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에 열린다. /최수호 기자

### 이주열 “군산·전북에 400~500억 긴급 지원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한국 GM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 감소 사태를 맞은 군산·전북 지역에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활용, 400~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에서 군산, 전북의 일자리 재난 사태에 대응해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에 "지역의 자금 수요도 감안하고, 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400~5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5조9000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정된다. 박 의원은 또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어 낙후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금 배정의 기준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 총재는 "기준을 바꿀 경우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들과 협의하겠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준) 재조정과 증액까지 포함해서 금통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호 기자

### 산업부, “美 철강 232조 조치 규범과 일치해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부터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김창규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되어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호 기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안보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등 많은 국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WTO에서 전자 상거래 관련 이슈도 다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